



통권 64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7. 2. 10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 공동대표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1월 28일 오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 전주 등지의 안기부 청사, 지부앞에서

안기부법 무효화와 김형찬씨 고문수사관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동시에 벌였다.

서울에서는 시민과 학생 500여명이 내곡동 안기부 청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의 무효화와

안기부 수사권 전면 박탈, 경희대생 김형찬 씨 고문 수사관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청사후문에서 헌인릉 돌며 버스정류장까지 함의행진을 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안기부 청사앞에서 안기부법 철회를 요구하는 장면.

날치기 법안처리 원천무효이다

안기부 수사권 모두 없애고

노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영수회담후 '국회논의'로 넘어간 날치기 법안 문제가 한보비리에 가려진채 임시 국회소집마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압살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외침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날치기 처리와 함께 재벌 특혜 부정비리에 대한 분노도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벌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한보비리로 날치기 법안이 선 불리 처리되는 것 또한 결코 덮여두지 않을 것이다.

날치기 패들! 그것은 참으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흉한 꼴이었다. 함께 재워 새벽에 실려온 허수아비들, 마치 무당주술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처럼 방망이 소리와, 일어서기 앞기 6분만에 11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뻔뻔스럽고 부끄럼도 모르는 그들은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끝사나운 신문광고를 냈다. 그들의 총재는 연두기자회견에서 '43년간 바꾸지 않았던 노동법을 선진국형으로 고쳤다'고 하는가하면, '우리나라에 공산당 무리들이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로써 안기부법을 개정했다'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날치기 자체에 대해서라도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실도 아닌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로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공산당 무리'라는 말로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남북관계, 노동, 야당에 대한 그의 인식은 공격적이고 위압적이었다'는 언론의 평을 받을 정도였다.

이같은 연두기자 회견은 더 큰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제조, 공공부문에 이어 언론, 방송사, 사무노련에 이르기까지

정권 세운 뒤 처음인 정치적 총파업에 들어갔다. 3,000여 대학교수들, 사제단, 승려들, 목회자들, 성공회 등 성직자들의 선언과 거리시위가 잇달았다.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 지역주민들이 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다는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이 농성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모금소식이 있는가하면 창원지법 민사부판사는 파업중인 노동자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에서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리기 앞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신청을 결정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봉급자 75%가 총파업을 지지했고, 정부의 강경대응에 83%가 반대했다. 안기부법 등 잘못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도 84%가 찬성했다.

이같은 국민저항이 거세지면서 '날치기 처리 백지화'와 '영수회담 불가'로 일관하며 대국민홍보로 설득하let 다던 오만이 마침내 영수회담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뿐이었다. 집권당 총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한 만큼 재심의를 헌법에 위배된다'며 노동법, 안기부법안 처리의 무효화를 거부했다. 다만 '국회에서 두법을 논의하여 재개정은 할 수 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있을 뿐이었다. 지금 정치권은 새로 터져나온 한보 특혜와 부정비리를 놓고 국정조사 특검제, 조사기간 문제 따위로 줄다리기를 하며 자칫 날치기 법안 문제를 회색시킬 수 있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날치기 행위와 그 법안 내용에 대한 투쟁은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국민적 성전이다. 날치기 원천 무효화와 민주적 법개정에 하나같이 떨어져 일어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처리의 부당성과 개정안 내용의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주장을 정리하여 다시 밝히려 한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주장한 것은 변화와 개혁이었다. 군사정권의 폭압구도에서 문민으로 변화, 모든 반민주적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빠질 수 없는 터였다.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은 물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바탕하여 의회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했다. 그것은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정신이 계승되어야 함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날치기 처리나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안은 그 어느 하나도 민주개혁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공개회의 원칙도 심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하는 행위는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민주 만행이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모든 법률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결절차와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의할 법률안 내용조차 모르고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 입법기관과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3권분립 정신에도, 국민대표 기구라는 것도, 민주주의 자체도 부정한 날치기 법률안은 원천 무효이고, 그들은 유권자의 뜻을 버렸듯이 의원직도 버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와 10조(불고지)에 관한 문제이다. 국보법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법이 제정되고부터이다. 6월 항쟁 뒤 6공이 들어서면서 특히 이법의 폐기 주장이 거세졌을 때 일부 야당은 국보법 폐기 - 대체 입법을 주장했고 당시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아예 폐기를 주장했었다. 집권 여당은 독소조항으로 악명 높았던 7조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뜻을 비치기도 했었다. 그러나 폐기도, 개정도 안되고 현정권이 들어서 안기부법상의 국보법 7조와 10조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7조와 10조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집

권당조차 인정하고 있었다. 안기부수사권이 삭제(7,10조)된 뒤에도 김삼석 남매 조작간첩 사건, 박충렬 씨 등 불법수사와 고문, 사건조작, 최근의 김형찬 학생에 대한 불법연행, 고문수사 등 안기부의 인권침해, 직권남용이 줄었고 있는 마당에 다시 그 악명높은 독소조항의 수사권을 되돌린다는 것은 현정권이 문민이 아니라 야만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대선을 앞둔 정권 재창출 기도와 사회진보 진영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대중을 탄압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문제이다. 모든 가치를 창조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이는 노동자들이다.

선진국 대열이니, 1만달러 시대니 자랑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생산주체는 이땅의 노동자들이었다. 인간노동의 가치는 이제 온 인류가 인정하고 생산주체로서 노동자의 기본권은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날치기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복수노조 유보와, 교직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았다. 제3자 개입 금지, 무노동 무임금, 노조 전임자 대우문제 등 개정해야 할 조항은 그대로 두고 새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따위로 노동자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자본, 재벌 이익에만 우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게 하였다. 자본과 정권이 고용 비용, 저효율을 말하며 노동자의 품삯을 깎아 초과 이윤을 찾으려는 낡은 사고가 바로 한보사태라는 부정비리를 낳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적인 인권개념은 더욱 폭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는 바로 이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편성을 받아들이는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전근대적 사고로 인권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자본의 무한경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날치기 처리 법안 원천무효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노동법은 민주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왜 저렇게까지 높은 담안에 가두어 놓아야 하는 건가요?

편집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새삼 돌이켜봐도 유난히도 무덤덤하고 답답했던 지난 여름이었다. 해마다 열렸던 통일축전에 참가하려 발랄하게 상경했던 전국각지의 한총련 학생들은, 경찰과의 대치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 생리적 고통까지 시달려야만 했다. 늘상 임기말을 '안보위기'로 장식하는 이 나라의 역대정권답게 현정부 역시 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다. 대대적인 연행과 검거 선봉이 몰아닥친 그 여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 47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고 이중 270여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학생들이 학문탐구의 기쁨에만 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오랜 꿈은 아직도 실현이 멀기만한 것일까. 60년대 4월의 학생들처럼, 70년대 10월의 학생들처럼, 그리고 80년대 5월과 8월의 학생들처럼 90년대의 학생들 역시 최루탄의 자욱한 연기 속에 수백명이 동시에 연행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화려한 말잔치가 난무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슬픈 풍경이다. 그중 하나, 한총련 통일축전 참가로 구속된 충남총련 의장이자 충남대 총학생회장인 송승의 군(27세)의 어머니 김숙자 님(52세)을 민가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잊을 수 없는 8월, 연세대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한다. “연세대 가있는 줄은 알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TV를 볼 수도, 안볼 수도 없고, 종일 껴다켰다 화만 삭였지요.” 연세대를 졸업한 두 살 위인 승의의 형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며 가보고 와야겠다고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졸업생이니 지리에도 밝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던 기대는 빗나가 신촌 주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사람들 속에 끼게 되고 만다. 동생을 찾으러간다면 형조차 경찰에 연행되어 48시간 이상을 소식을 몰라 애태우던 그때의 어머니의 심정, 한 아들은 경찰의 차단으로 밥조차 먹지 못한채 굶고 있고, 또 한 아들은 경찰서에 억류되어 직장에도조차 나갈 수 없었던 기가막힌 상황이었다.

주모자금으로 몰려 승의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된지 8일 만에 처음 만나러 갔다. 관공서라고는 동사무소 밖에 가보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대공분실에서 승의는 흙먼지와 핏자욱이 남아있는 입던 옷 그대로, 며칠을 굶어 ‘두 눈이 십 리는 쑥 들어가 흰자위가 다 드러난’ 처참한 모습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와중에도 승의는 순박하게만 살아오신 부모님이 언론 보도만 믿고 아들에게 실망하셨을까봐 걱정이었다. 그런 승의의 걱정에서 아버님은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되겠느냐”고 오히려 위로하셨고 어머니는 “내자식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들 말 믿지 않고 내가 누구 말을 믿겠느냐”고 하셨다 한다.

“많은 학생들의 대표로서 책임은 져야지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를 두셨는데, 승의는 동생이

다. 어릴때부터 얼마나 자상하고 세심한지 때로는 딸처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의논하던 아들이었다. 그래서 딸이 없어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다고 하신다. 마음이 여러 자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은 어찌나 눈물이 많은지 “글썽 내가 저 앞에서 오히려 울지 못해요”라고 하신다. 그렇다고 승의의 눈물이 마냥 여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학생 지도부로서 승의는 언제나 책임감이 강하고 당당하다. 하지만 철창을 마주하고선 자그마한 어머니의 모습 앞에서는 웬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리고 오히려 땀뻑뻑하고 강한 어머니의 모습에 흘리는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하다.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저 큰 책임을 지게 생겼구나, 열심히 잘하라는 마음 뿐이었지요.” 어머니의 이런 소박한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심에서 2년 6월, 2심에서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특히 승의의 학교 충남대는 유난히도 연행자와 구속자가 많기도 했다. 아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사의 부당한 말 속에서도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마디는 ‘많은 학생들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다 풀려났다면 모를까, 저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갇혔는데 내아들만 무사히 풀려나오길 바랄 수는 없지요. 어린 학생들이나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어요”

승의의 감옥살이-징벌, 금치의 악순환

문민정부 들어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실례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양심수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에 대해 그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가 항의라도 하면 ‘공무



집행방해’나 ‘기물파손’ 혐의로 즉각 고발해 버려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양구치소에서 전두환 씨와 같은 담안에 있는 승의의 감옥생활은 여러가지로 곱절로 고통스럽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도소측은 ‘얼마 안되는’ 학생 양심수들의 소내 처우개선을 위한 항의와 그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캄캄한 징벌방에 가두어버리기 일쑤였다. 정당한 ‘징벌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이러한 조치는 교도소의 인권상황을 십년 전으로 후퇴시키고도 남았다. 벌써 승의가 두 차례이고, 심지어 승의와 함께 안양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미결양심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감방보다 징벌방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

대전에서 안양교도소까지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고 오는 어머니의 면회길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지만 하다.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설레이기도 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징벌방에 갇혀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라는 설명도 없는 싸늘한 통고였다. 그런 경우를 처음 당했기에 어머니는 그저 낙담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승의 앞에서는 한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줄곧 흘리며 오셨다.

하지만 지난 12월 26일, 노동법·안기부법이 날치기로 개악되고 이에 항의해 양심수들이 단식을 시작하자 안양교도소측은 단식하던 학생들을 묶어서 독방에 가둬버렸다. 어머니께서는 ‘분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식들에게로 향하는 어머니들의 작은 체구에는 어느 곳에 것처럼 뜨겁고도 강한 열정의 덩어리가 숨어있는 것일까. 충남대 다른 학생 어머니로부터 ‘민가협’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신철어머님’ 이랑 다른 민가협 엄마들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갔다. 평생 남 앞에서 큰



▲ 가족들과 함께한 승승의 군 (왼쪽 위)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었던 어
머니는 소
장실로 가
는 길목에
서 주저앉
았다. 순식
간에 새까
맣게 물려
든 경비교
도대들도
두렵지 않
았다. 끌려
가지 않으

려고 계단 난간에 매달려 소리소리 질렀다. 차라리 나를 가두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과 같이 간혀있을 수 있냐고, 우리 아들과 살거라고 목놓아 울었다 하신다. 그러기를 한동안 마침내 어머니는 끌려가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일주일 이상은 병원 입원실에 누워 사랑하는 아들의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교도소 측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혹시 거짓으로 아픈 것이 아니냐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지껄었다.

“여태껏 나라에서 시키는대로만 살아온 것이 분해요”

충청도 토박이인 승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참으로 조용조용하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대로 형용사가 되어 들어맞는 경우를 보는데, 바로 승의 어머니가 그러하다.

어느날 아들의 면회를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나오며 교도소 환담을 돌아보았다. 겹겹이 쌓여 참으로 까마득하게 높은 담이었다. 순간 어머니는 도무지 아무리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승의가 저 담안

에 간혀있어야 하는지, 대대로 잘못된 일이 없는 집 안에서 살아온 승의가 도대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러 푸른옷을 입고 저 담장 안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발을 구르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문득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독하고 모진 이야기를 내뱉었다. “여태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시키는대로 살아만 온게 분해, 이제 법이란 법은 몽땅 어기고 살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살아온 나라이전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들 승의를 빼앗아 감옥의 높은 담장 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살 정도로 모질지도 못한 어머니는 그대신 30년 간을 새소식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었던 신문구독을 끊어버렸다. “모르는 사람을 알게해주는 것이 신문이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지 않는걸요.” TV뉴스도 모두 거짓말 같아서 좀처럼 보지 않는다. 말이 없고 조용하던 어머니는 누가 신문 보도를 들먹이기라도 할라치면 “지들 좋을대로만 쓴 얘기”라고 쏘아붙인다.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을때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고 한다. “아하~ 이렇게 맘대로 하려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을 가두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승의의 징역살이가 시작된다. 주어진 시간이니까 잘 감당하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는 여전히 의연하다. 아들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 새롭게 깨달아가는 진실에 대한 어머니의 발견은 감옥 안의 승의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한 믿음과 진실들이 모여 승의의 자유와 간혀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자유를 앞당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새해에는 모두들 넉넉하고 자신있는 기원을 가져볼 일이다. 더이상 이땅에 부당하게 간혀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자,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

차가운 겨울을 박차고

민주화를 외치던 시절, 무수한 언어가 난무하던 10년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여기 차디찬 방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죽어간 이들을 생각하면서 조국사랑이란 말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나라 산천 그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꽃들은 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날것입니다. 그 꽃위에 앉는 나비며 새들 그리고 별들까지도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태어나겠지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말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봄이 온다고 하여도 그 봄은 아닐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봄은 말입니다.

10년이란 긴긴세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때 서울구치소에 왔는데 꼭 10년만에 왔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 땅의 봄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이들과 같이, 봄에 피는 꽃들과 같이 우리는 이땅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할 때마다 자신들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과거의 역사는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내자신은 고통을 낙으로 삼고 조국사랑으로 나서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 10년동안 그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다시 10년을 생각하면서 내자신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내아픔으로 알고 오늘의 이 시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나무처럼 당당히 서서 차가운 겨울을 박차고 봄이 오는 소리에 가슴을 활짝 펴고 조국사랑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무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 와서 내자신이 겪어보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그러나 이제는 내자신이 수많은 이들의 가족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을 생각입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런 많은 분들을 그리워 하며 우리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그리워해봅니다.

눈을 감고 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람,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만 줄입니다.

1997.1.14

서울구치소에서 진관

진관스님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을 지내며 고난받는 양심들을 위하여 일해온 인권운동가로 특히 함세헌 김영태 노인등 전쟁포로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장기수들의 송환운동을 하면서 해외교포와 연락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혐의를 받아 지난 10월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중입니다.

이런 회원

서효순 회원을 찾아

편집부

서양 풍경화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세계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장엄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는 이 독립운동은 네덜란드인으로 하여금 독립의 그 순간에 국토에 대한 자량과 사랑을 남달리 뜨겁게 느끼게 했던 것이다. 인물만 그럴 줄 알았던 화폭에다 비로소 그네들의 자연을 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서양 풍경화가 다른 나라가 아닌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시련을 통해 새로운 세계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는 새해 새 빛을 참담하게 짓이겨 버렸다. 이것은 우리 삶의 시련이다.

서효순 회원은 58년 부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병원 정신과 낮병동 간호사로 78년 11월부터 19년째 일하고 있다. 옥안에 있는 한 장기수 선생님과 편지 나누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거르지 않고 찾는 골수팬이다. 87년 서울대병원 노조결성 때 발기인으로 참가한 이후 노동조합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일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종로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느라 매

서운 바람을 맞았던 그이의 얼굴에서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절망이나 한숨보다는 알곡같은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대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집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활을 목적으로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외출을 많이 하고 미술이나 운동, 음악요법으로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요" 조리있고 차분한 말투가 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천성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랜 병원근무를 통해 변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병원이란 곳이 직종이 엄청 많거든요. 말로는 150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알지도 못하고 어쩌다 만나게 돼도 아는 체도 않고 불협화음만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87년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고 첫 번째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끌어내면서 파업을 하게 됐죠. 청소하는 아주머니,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 간호사,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닥에 스치로폴을 깔고 앉아 함께 농성을 시작했죠. 그때 병원 관리자들이 '어떻게 간호사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참 많은 것들을 일군 것이지요.
지금도 그래요.
사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앞아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가장 분개했어요. '감히...' 하는 말이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주죠. 사람들 사이에 스며있는 인간에 대한, 직종에 대한 무시 차별들... 이런 것들이 차츰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이한테는 노동조합 활동이 개인의 성장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사람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이 생겨도 넓은 의미로 파악을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참 괜찮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시켜 가면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됐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졌어요. 한가지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후원회는 언제 알게 되셨나요

"노동조합 활동할 때 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입하면 무슨 큰일을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민가협 집회나 명동성당 캠페인, 연말 시와 노래의 밤 공

연은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그때마다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뭔가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움도 못 주고 이름만 올리고 살아도 되나 싶어요."

성격상 드러내 놓고 사람들 사이에 나서는 일이 난처하기 이를 데 없이 '고약스런 일'이라고 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이런 고약스러운 자리에 불려나와야 하는 고약스런 처지에 빠졌다고 연신 '고약스럽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 말에 후원회 회원의 '역할론'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고약스러운 지경에 빠졌다.

지난 세월에 몇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신년맞이 변산 산행을 즐겁게 추억하며 들려준다. 선생님들과 눈발에서 눈싸움한 일이며 해맞이 했던 일이며 자그마한 얼굴이 꽃처럼 부풀어진다. 차분하고 조용하던 목소리도 높아지고 출렁거린다. 정말 신났던 모양이다. 장기수 선생님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했느냐고 묻자 짧게 대답한다. "사는 이야기죠." 이 대목에서는 더없이 뿌듯하고 흐뭇한 얼굴이 되었다. 깊은 신뢰감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교감하는 사람들만이 내비칠 수 있는 힘이 보였다.

사람의 몸은 어느 순간까지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어떤 풍경 속에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되새기며 삶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시련이 온다면 그것을 통해 더 치열하고 가열찬 애정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우리 삶의 풍경화를, 그 그림 속의 우리 각자의 몫을.

그이가 마지막을 당부하던 말이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주 힘들었을 때 간혹 소망을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돼요. 사는 일에서나 어떤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참 많은 것들을 일군 것이지요. 지금도 그래요.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시인이었더라,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지 하던 이가. ☹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편집부



▲ '늦깎이' 아버지, 남편이 되어 부인과 함께 승화 둘째 짝은 기념사진

김영승선생님의 62년을 정리하기는 참 쉽다. 인생의 절반이상을 감옥에서 산 탓이다.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몇 년전 이 종 선생님이 입원해 있던 보라매 병원에서였다. 낮시간에 잠시 잠을 내 병문안을 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병상일지를 보던 나는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전날 밤 이 종 선생님의 병상 기록이 너무나 꼼꼼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2시 05분.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심. 2시 20분. 가래를 몇차례 그렁 거리심. 2시 55분. 방귀를 끼심' 몇 분 단위로 기록은 계속 되었다.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며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이 선생님의 병상을 지킨 따뜻한 마음. 그 글씨의 주인공이 바로 김영승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1935년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태어났다. '좁다란 토랑에다 모를 심고, 봄이면 취나물이며 산나물들을 뜯어다 팔아

보릿고개를 넘던', '한 번도 새 옷을 입어 본 적 없이 속옷가지도 물려 입어야 했던'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아들 서이 딸 너이'의 형제애는 돈독했다.

"해방되기 전 해니까 내가 아홉 살되던 해입니다. 큰 형님이 유언비어죄로 몰려 목포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가 뻔뻔말라 있는 형한테 사식을 넣어주려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우리 형님 밥 넣어 주라' 생떼를 썼지요. 그 때 처음 유치장 구경을 한 셈입니다."

이듬해 1945년, 큰 형님은 해방과 함께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몇몇 지주를 제외하고는 빈농과 소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생님의 고향에서는 해방과 함께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를 이루어갔다.

선생님은 당시 낮에는 소학교 학생이었지만, 밤이면 야학 선생님이 되었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한 또래들을 앓혀 놓고 국문과 산수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또 몸이 빠른 선생님은 당시 면 여맹위원회에서 일을 하던 큰 누이의 심부름도 맡아하게 되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짧은 동안의 해방공간이었다.

16살의 어린 빨치산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자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처연히 떠 있던 보름달에 반사되어 '나뭇가지에 걸린 살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거리던' 끔찍한 전투가 있는 후
입산해 있던 빨치산들은 유치내산을 거쳐 화학산으로 거점을 이동해야 했다.

태청산으로 입산하게 된다. 당시 영광중학교 학생이던 선생님은 소년단 선거를 통해 소년단장을 맡고 있었다. 군인이 동네로 들어오자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은 거의 몰매를 맞아 '병신'이 되거나, 장독을 풀기위해 '똥물을 먹어'도 죽는 일이 태반으로 일어나자 동네 자체가 태청산으로 옮겨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선생님의 산생활이 시작되었다. 태청산은 여러 지역에서 입산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일부가 불갑산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51년 1월 20일 불갑산 전투는 날짜까지 잊을 수 없을만큼 치참했습니다. 20,000여 명의 희생을 낳은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나무의 수와 사람의 수가 거의 비슷할만큼 많은 수의 토벌대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선생님은 동료 한 사람과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었다. 그 곳은 일차 굴을 파고 그 곳에서 더 들어 간 곳에 이차 굴을 파놓은 곳이었다. 그 곳까지 찾아낸 토벌대 몇 명이 들어와 굴을 뒤지기 시작했다. 밖에 있었던 터라 어둠에 눈이 익숙하지 않은 토벌대는 선생님 바로 앞에서있다가도 선생님과 동료가 숨어있던 이차 굴을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나가 버렸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심장이 산산히 깨어져 와르르 내려 앉았다.

박격포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날 밤, 처연히 떠 있던 보름달에 반사되어 '나뭇가지에 걸린 살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거리던' 끔찍한 전투가 있는 후 입산해 있던 빨치산들은 유치내산을 거쳐 화학산으로 거점을 이동해야 했다.

지울 수 없는 가슴 속 깊은곳의 회한

51년 가을까지, 입산할 때 입었던 중학교 반팔 교복과 짚으로 신을 삼아 한 켤레는 신고 다른 한 켤레는 허리에 차고 산생활을 해야했다.

선생님은 51년 11월 민청학원이 있던 백운산으로 다시 떠나야했다. 그러나 토벌군의 공세가 너무 심해 학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20세 전후의 학생들은 무장부대와 유격부대로 편입되었다. 선생님은 고작 16살의 나이로 여천군당에 소환되어 소년 빨치산이 되었다.

51년 4월 화학산 전투에 참가한 선생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온 산을 휩쓸다 시피 올라오는 대규모 토벌대를 당할 수 없어 빨치산들은 각자 메고 있던 배낭을 땅에 묻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귀옆으로 스쳐지나는 총탄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뛰다보니 어느덧 토벌대들과의 간격이 20m 안팎으로 좁혀졌다.

"급한 대로 바위틈속으로 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발끝부터 가슴까지 돌고 덮고 그 위를 낙엽을 긁어모아 다시 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얼굴까지 낙엽으로 덮고 눈만 낙엽새로 보이게 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죽은 듯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능한 작게 한다고 했지만 심장이 쿵쿵거

전사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다 다급한 상황이라
동지들을 묻지 못했던 일은 36년 간 긴 감옥살이에서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회한이 되었습니다.

리는지라 숨을 들이 쉴 때는 배 위에 얹어놓은 넘직한 돌이 들썩들썩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토벌대들이 바로 내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들고 나와!’

머리위에 버티고 서 소리치는 토벌대의 고함은 천둥보다 무섭게 울리는 것 같았다.

‘나오지 않으면 쏠겠다!’는 위협과 함께 공포탄이 터졌다. 두 번째 고함에 선생님의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이대로 떳떳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가시게 했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었다.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머리맡에 서있던 토벌대가 선생님의 몸 위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토벌대의 후퇴를 알리는 호르라기 소리가 울렸다.

“제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천행과 더불어 한 동료의 죽음을 각오한 항전때문이었습니다.” 토벌대가 사라진 후 돌과 낙엽을 걷어내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자 멀지 않은 켜기밭에 다른 빨치산 동료가 서있는 것이 보였다. 토벌대가 발견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 동지였던 것이다. 그는 꿰기밭 작은 바위에 의지해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게 발견된 것이다. 그에게는 마지막 총알 한 발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최후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총탄을 토벌대를 향해 쏜 것이다.

“그날 밤 다시 동료들이 전사한 곳을 찾

아 갔는데 정말 끔찍하더군요. 심한 출혈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물가까지 기어와 물을 마시다 그대로 물에 목을 잠그고 숨진 주검이 산무덤을 이루고 그 피가 계곡을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전사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다 다급한 상황이라 동지들을 묻지 못했던 일은 36년 간 긴 감옥살이에서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회한이 되었습니다.”

52년 봄 선생님은 지리산으로 옮겨 빨치산 활동을 벌이다 53년 전남부대가 있는 백운산으로 다시 활동지역을 옮겼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은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다. 토벌대에 의한 검거가 살벌했기 때문이다. 산을 내려간 큰 누님이 심한 고문으로 몸을 버린 일이나 작은 형수가 포로가 되었다 산기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일은 더욱 하산을 할 수 없게 하는 사건이었다.

산에 남아 마지막 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것은 54년 2월 20일 백운산에서였다.

국군 1개 연대의 공격으로 방어선은 허물어졌고 선생님은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다. 그 총탄은 왼쪽 어깨를 뚫고 턱으로 나왔다. 언제라도 상처를 동여매기 위해 목에 걸고 다니던 긴 명주끈으로 어깨를 묶고 필사의 힘으로 포위망을 빠져 나가려던 선생님은 다시 엉덩이와 왼팔에 총을 맞아 의식을 잃고 숲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으며 선생님은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기며 끝까지

‘인간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평범한 이야기이면서도
이 성품은 우리 민족의 고난찬 역사를 떠받쳐온 전통이었고
우리 민족의 역사 밑바닥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지니고 다니던 총 한자루를 풀숲 멀리에 내
던졌다. 19세, 소년 빨치산의 최후 저항이
었다.

감옥에서 흘러보낸 36년 세월

고등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선
생님은 남원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 최종심
에서 무기를 확정받는다. 그 후 선생님은
소년수들이 구금되어 있는 김천형무소에서
지내다 성인이 된후 안동, 대전, 대구, 목
포, 광주, 대전 형무소로 이감되며 60년
4.19의 영향으로 20년으로 감형된 형기를
살았다.

그러나 만기를 다 채운 선생님을 기다린
것은 따뜻한 고향이 아니라, 중앙정보부 분
실의 지하 수사실이었다. 다시 전향을 요구
하는 구타와 고발장.

결국 선생님은 75년 사회안전법의 제정
으로 단 하루도 너른 고향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다시 청주감호소에 구금되었다.

사회안전법의 폐지로 89년, 19세의 청년
은 흰머리 54세의 중년이 되어서야 감옥문
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36년만에 세상에
나온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활고
였다.

“세차장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아침 9시
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차를 닦아야 하는
데 쉼이 넘은 나이에 거, 참, 중노동이더군
요. 점심을 먹는 2-5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서서 차를 닦았거든요. 같이 일을 하던 젊
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시간만이라도 쉴

수가 있는데, 나는 그 때 담배도 안 피웠으
니 종일 서서 차를 닦는 겁니다. 중간에 간
식시간도 없으니 나중엔 도무지 배가 고파
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사장에게
건의했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허허허.”

그 후 선생님은 경비일, 철공 공장, 기계
부품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지낸다.

현재 선생님은 주차장 주차원으로 일을
한다. 해고되어 집에 있는 동안 잠시도 쉴
수 없어 운전면허를 따 놓은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한 몫해 준 것이다.

아침마다 6km 썩을 뛰며 건강관리를 하
는 선생님은 인천에서 2시간이 걸리는 주차
장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한다. 또 집에서는
한참 재롱이 늘어나는 네 살 난 딸 승희의
참 좋은 아빠이며, 연탄 창고를 방으로 개
조해 만든 곳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었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신 어엿한 가
장이다.

모두 선생님의 성실함으로 이룬 일들이
다.

그러나 여전히 미소는 소년인, 소년 빨치
산의 성실한 조국사랑은 아직도 미완이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산다는 것
은 평범한 이야기이면서도 이 성품은 우리
민족의 고난찬 역사를 떠받쳐온 전통이었고
우리 민족의 역사 밑바닥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김영송 선생님이
쓴 글에서) ☺

‘고문수사’의 대명사, 안기부가 수사권 확대라니요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멈추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2년 4월 29일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3년형을 살고 95년 5월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자 백태웅씨는 같은 사건으로 15형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5년째 구금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노해씨를 비롯한 동료 13명이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구금중입니다. 저는 구속 당시 22일간을 20여명의 동료들과 남산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에 있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안기부하면 여러분의 머리속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문’! 바로 인권탄압의 대명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원래 긴급구속장으로 체포되었다면 48시간 이내에, 내가 임의동행에 응했다면 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행되었을 당시 저는 그 어떠한 신분증도 제시 받지 못했고, 목비권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인신매매범이나 납치범인줄만 알았습니다. 목비권을 행사하자 그들은 제 신원을 알아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제 지문을 강제로 채취했습니다. 저는 ‘구속영장을 제시하라!’ ‘당신들 신분증을 보여달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해달라!’ 며 울부짖었습니다. ‘부당한 체포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 며 계속 완강히 거부하자 강제로 지문을 찍기 위해 10여명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 제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수사관 두세명씩 팔을 뒤로 꺾고 손가락 하나 하나를 벌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꼭 움켜쥐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여 지문이 찍히질 않으니까 수건으로 닦고 손가락 사이에 플라스틱 자를 끼웠습니다. 그래도 손을 꼭 움켜쥐자 이번에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강제 지문채취를 했으니 아마 두세 시간은 실랑이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당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가장 고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속했습니다.

제 약혼자 백태웅씨는 안기부에서 ‘약물투여를 했다’고 재판 당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안기부에서 경험한 고문 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약물투여라고 밝혔습니다. 밥속에다 일종의 수면제 같은 것을 넣어 밥을 먹고 나면 잠시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비증세가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차례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안기부에 가서 놀란 것은, 그들은 심지어 당시에 가장 잘나간다는 유명 탈렌트까지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의 구석구석까지 사찰하는 안기부. 물론 그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라고 말하겠지요. 도대체 안기부는 누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고문수사를 하며 그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까봐 안달복달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 정말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안기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기부의 존재 이유는 말 그대로 진정으로 국민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5,6공 시절 안기부가 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광주 민중항쟁을 총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범법자들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0,80년대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 원인 제공자를 안기부에서 잡아서 수사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안기부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위해 싸운 양심적인 민주시민, 재야인사, 청년학생, 노동운동가들만 잡아갔습니다. 잡아서 고문하고 간첩으로 만들었지요. 뿐만아니라 중요한 선거 때마다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보수층의 표를 얻어 집권당의 집권을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잘봐야합니다. 이번에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도 바로 이것을 노렸기 때문이란 점을 잘봐야 합니다. 93년에 문민정부의 첫 개혁조치로 안기부법을 개정했었음에도 또다시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안기부법을 개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기부법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안기부는 93년 법개정 이후 직원들이 매우 위축돼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기부가 자기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와 다가올 대선에서 안기부의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해 공작정치와 간첩사건 조작 등을 통한 색깔논쟁 등을 불러일으켜 재집권하려는 신한국당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날치기 사태를 보며,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온국민이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6월 항쟁은 국민들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그걸 등에 얹고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민정부로서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분명히 김영삼 정권은 문민독재정부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 반드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을 심판해야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글은 전경희 씨가 지난 1월 23일 목요일집회에서 사례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눈덮인 산등성이를 따라 걸으며

황현숙 (27세, 학생)

1997년 1월 19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양심수 후원회의 97년 첫 산행을 위해
선생님들과 회원 33명이 북한산
북악파크에서 모였다.

여느날보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회원들이 왔다. 지난 12월 산행이
시와 노래의 밤, 회원 송년모임으로
못가게 되어서 서로들 많이 그리워서
였을거라 하며 서로들 얼굴만 보고도 환한
웃음을 지어보인다. 산보다 '사람' 이라니
처음 산행에 온 나는 무언가
미심쩍기도 하다!

산 아래에서는 눈이 온지 꽤 오래된 일이라
산에 눈이 쌓여 있으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겨울산이 눈을 안고
거기 서 있었다.

평창동 매표소를 지나 대성문에 올라서
주능선을 따라 보국문, 대동문을 거쳐
수유리의 아카데미 하우스 쪽으로 내려오는
일정이었다. 간혹 가다가 미끄러운 길이

많아 조마조마 했지만 산행이 끝날때까지
흰 눈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겨울 산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였을
것이다. 눈을 뭉쳐 일행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이 옷 속으로 들어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해야했던 사람도
있었다. 순백의 눈을 보니 각자
마음속에 있던 개구쟁이 모습들이
뛰어나오는 모양이었다.

그런저런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대성문까지
오르다보니 어느새 12시가 지나 있었다.
더 이상 밥을 안먹고 길을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은 비장한(?) 모습으로 곳곳의
별종은 자리를 기웃거렸다. 우리만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보이는 한 자리에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빈 하늘에 머리를
담그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겨울날
산위에서 먹는 점심은 색다른 맛이였다.

여기저기 산을 오르느라 땀도 쏟고
신나게 눈구경을 한 탓인지 입맛이 아주
달랐다. 대체로 김밥하나 달랑 싸들고 온
사람들이 많아 모자랄까봐 걱정을 했는데
웬걸 하나같이 배불리 양껏 먹어댔던 어찌
보면 해괴한(!) 점심시간이었다. 과일과 야
채를 미리 썰어와 즉석에서 버무려 먹는 사
람도 있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한 젓가
락씩 고루고루 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먹
는 모습들만으로도 풍성해진다. 거기서 북

한산이 보여주는 경치를 들이키면서 소주를 마시는 기분도 썩 좋았다. 보국문까지 미끄러운 길을 성큼성큼 내려온 것은 순전히 그 소주덕이었을지도 모른다. 잠깐 쉬었다가 대동문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나서는 근처에 별종고 풍경 좋아 앉아있기 좋은 곳에 잠시 자리를 잡았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기존 회원의 '열성적인 전도'를 통하여 온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후원회원을 교회로 꼬드리기려고 동행한 사람도 있었다. 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산행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강마른 체구였지만 나보다 더 씩씩하고 용감해 보이는 변숙현 선생님, 헤밍웨이처럼 멋지게 기른 수염을 왜 자르셨는지 질문 공세에 시달린 김수룡 선생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안학섭 선생님의 음성에서 묵직한 무게가 묻어나온다.

대동문에서 수유탑까지는 1900미터였는데 대동문에서 하산하는 여러갈래 길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었다. 그대신 가파르고 얼어붙은 곳이 많아 다소 위험스럽기도 했다. 곳곳에 박아둔 철사다리에 매달려 어찌어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허허실실 내려왔다. 무사히 내려와 문득

북한산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뭔가를 빠뜨리고 온 듯한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신년 첫 산행이었는데 한 해를 힘차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소담스런 얘기를 나눈것도 아니다. 혹시 내마음에 얼어붙은 벽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힘찬 각오도, 사람들과 사귀도 모른체 해버린 것은 아닐까... 울적해져 버리기도 했다. 어쩌면 처음 산행이라 불편해서 그런 거였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외면해 버리려는 오래된 습관 탓이거나.

다음달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을 2월 산행을 기대해본다. 그때는 좀더 이번과는 다르게 산행을 하리라 생각하며 그날의 눈덮인 북한산과 선생님들의 웃음을 떠올려 본다. ☺

2월산행

연 제: 1997년 2월 16일(일)

어디로: 북한산 영봉

모이는 곳: 우이동 그린파크 앞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버스 28번, 6번, 6-1번, 23번을 타신후 내리면 됩니다.

준비할 것: 맛있는 도시락, 따뜻한 물, 회비 3,000원
(에다 조금 옷돈이 필요함, 물가인상으로)

- 1/1 -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제 새해 첫날부터 시행-첫날 전국 법원에 84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전담판사의 실질심사를 받다.
- 목포교도소, 안양교도소등 악법날치기 처리에 항의 양심수들 단식농성.
- 3 - 민가협 사무국 새해 시무식. 8
- 민주노총 2단계 파업에 들어가다. 자동차노련등 46개 사업장 9,600명 총파업에 참여.
- 4 -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및 규탄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린다.
-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 단식농성중인 안양교도소 양심수에 대한 교도소의 징벌에 항의하여 민가협 회원들과 교도소 방문. 부소장, 보안과장 등을 만나 강력히 항의.
- 5 - 민주노총, 종묘공원에서 한국노총, 서울역광장에서 날치기 규탄 집회.
- 6 - 민주노총 소속 현충련, 사무, 전문, 건설노련 등 150개 노조 19만 8백여명 2단계 총파업에 들어감. 종묘공원에서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김영삼 퇴진 결의대회' 열린다.
- 대검찰청 공안부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7명과 단위조합 30명에게 7일까지 수사기관에 출두하라며 소환장 보냄.
- 7 - 민가협 회원들, 안양교도소 방문 8.15 연세대에서 구속된 송승의 학생(충남총련 의장)등 징벌에 항의, 몸싸움에서 송승의 어머니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법 안기부법 등 법안처리 철회를 거부.
- 방송4사와 병원노련, 의료보험노조 등 189개 노조 22만명 무기한 총파업에 합류.
- 서울구치소 양심수, 날치기 처리에 항의 단식농성
- 전국 36개 법대 교수 62명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법 노동법 무효화를 주장.
-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 조영진 교수)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의 절차와 내용이 용납될 수 없다며 무효화 주장.
-민가협 165회 목요집회, 노동법(카톨릭 노동사목회 박은희 소장) 안기부법(전국연합 고상만 간사)등 날치기 원천무효주장 연설, 양심수들의 날치기처리 항의 단식농성에 대해 연설(송승의 가족). 꽃다지 노래공연
-민가협 회원들, 명동성당으로 민주노총 농성지도부와 향린교회, 범대위, 김형찬 대책위등 격려방문, 이어 유가협 회원들과 함께 문화방송국을 방문 파업노조원들 격려하다.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20명에게 구인장 발부
-한신대 전북대 조선대 등 교수 날치기법 무효화 성명과 농성에 들어감.
- 10 - 민가협 등 전국 866개 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보고, 토론, 결의문, 행동지침, 발표) 성공회 대성당에서 세종로 정부청사까지 거리시위.
- '민주주의와 국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울산지역 노동자 시민 한마당' 행사를 마치고 거리시위를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을 최루탄을 쏘아 가로막는데 항의 현대자동차 노조원 정재성(의장 2부)씨가 분신, 중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 성심병원에 옮겨 치료중.

- 11 - 민주노총 범대위 공동주최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노동자, 시민, 학생 3만여명이 함께하고 명동성당까지 경찰 최루탄을 뚫고 행진.

-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와 민주수호를 위한 1997인 선언 발표.

- 12 - 대전지법 어수용 판사는 노동법등 날치기에 항의 시위에 참가한 만도기계 노조 선전부장 임두형씨등 2명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수호를 위한 여성계 200인 선언' 발표

- 13 - 8.15 연세대에서 구속된 충남대 총학생회장 송승의 학생의 어머니 김숙자 님이 안양교대 소 학생징벌에 항의하다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중 퇴원. 민가협 회원들 위로방문.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선언발표 이어 3,000여 신도 시민이 함께하는 '김영삼 정권의 회개를 위한 시국 기도회'를 갖고 명동 시가지까지 촛불시위.

- 14 - 민주열사 박종철 10주기 추모의 밤, '종철아 다시 일어나라, 심판하라!' 행사가 기념사업회와 서울대 동창회주관으로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린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고, 한국노총 1600여 노조 420,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

- 8.15 연세대에서 진압경찰의 돌에 맞아 한쪽눈을 실명한 서규석(고대)씨와 가족들 국가

를 상대로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

- 15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종묘공원과 여의도광장에서 날치기법 무효화 노동자 결의대회를 80,000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이날 하루 민주노총 431개 노조는 370,000명이 3단계 총파업에 참가했고, 한국노총은 1,300여 노조 380,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

- 양심수 후원회 1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날치기법 대응, 양심수 영치금, 양로원 방문 등을 논의. 회의를 끝내고 명동성당 민주노총 농성지도부와 범대위 등 격려방문.

- 광주고법 형사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김병균 목사에게 '표현물을 가졌어도 탐독 증거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 16 - 민가협 166회 목요일집회를 열고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규탄. 함운경씨(안기부 피해사례),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우리는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연설, 박정기 유가협 회장의 연설.

- 민주노총 산하 방송 언론사 노조와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명동까지 행진.

- 17개 언론사 노조 오늘 파업에 합류

- 창원지법 제 1민사부(재판장 문홍수 부장판사),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가처분신청에서 '파업의 불법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법,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이 민주노총 파업지도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전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김종식 전 전대협 의장등이 국가보안법 4조 1항(기밀, 탐지, 누설)에 대하여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법으로 누설을 금하는 법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호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한정합헌 결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은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도 해당된다'와 다르게 판정.

17 - 김수환 추기경 청와대 방문, 명동성당에 공권력 투입 반대와 대화해결 촉구.

- 문인 849명 날치기법 철회 시국선언 발표.
- 대전지법 형사 1단독(한상곤 판사), 노동법 파업과 관련 공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도기계 노조원에 대해 변호사의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인다.
- 늦봄 문익환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8 - 늦봄 문익환 목사 3주기 추모를 맞아 12시 모란공원 묘소 참배와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추모강연(강만길 교수) 및 늦봄 통일상 시상식과 문화공연. 제2회 '늦봄통일상'은 기독교 방송국 '통일의 길' 제작팀이 수상.
-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10,000여 시민, 학생,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범대위 주최로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집회가 끝나고 종로 명동까지 거리시위.

19 - 양심수후원회 새해 첫 산행. 36명이 모여 평창동, 일선사, 대성문, 대동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4.19국립묘지로 내려와 뒤편을 하고 끝냄.

20 - 민가협 상임의장 정양엽님과 전 회장인 임기란, 김정숙, 안옥희, 서경순님 그리고 김성만 어머니가 전주교도소에 구금중인 이경섭씨를 면회하고 위로. 손병선, 김성만씨도 면회함. 또한 어머니들은 교도소측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집에 보내지 않은 일에 강력하게 항의.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모임과 민교협이 주최하는 '시국 대토론회'가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21 - 3당총재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김영삼 대통령,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재심의 요청거절, 다만 국회에서 재논의와 재개정 제시, 민주노총 농성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보류키로.

- 민주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단병호씨 경기도 고양시에서 붙잡혔으나 2시간만에 풀려나다.

22 - 민가협 운영위원회. 사업, 재정보고 및 12차 총회준비모임등 논의.

- 성공회 전국사제단, 비상시국미사. 광화문 네거리까지 성직자 신자 시민들 거리시위.

- 민주노총 수요파업 135개노조 14만명이 참가했다고 발표. 종묘공원에서 날치기 무효 노동자 결의대회 가짐.

- 서울고법 형사 4부, 8.15 연세대에서 구속된 한석(청주대)씨등 2명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

23 - 민가협 167회 목요집회. 양건모 병노련 부위원장(병노련의 총파업 투쟁 보고), 전경희씨(남산 안기부에서 고문당한 피해사례)가 연설. 꽃다지 노래공연.

-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의 신도 1천여명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기도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평화시위.

- 한의사 925명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 시국선언

- 「말」2월호를 5곳의 교도소에 발송.

24 - 서울지검 공안2부는 8.15 연세대 사태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단국대) 설중호(단국대, 충청총련 의장) 징역 10년, 이태환(전북대) 한총련 조직강화국장 등 5명에게 징역 7년, 김현수(명지대) 등 3명에게 징역 5~3년까지 구형.

- 민주노총 농성지도부, 지난해 12.26부터 농성하던 명동성당 철수, 삼선동 사무실로 옮김.

25 -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완전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범대위주최로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26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하는 '날치기 노동악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000 노동자와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27 -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서명교수모임 50여명이 낙성대 사무실에서 27~29일까지 3일간 농성에 들어감.

28 -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내곡동 안기부실 앞에서 범대위 주최로 500여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 순천향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학생 문병 다녀오다.

30 - 민가협 168회 목요집회. 사무노련 허장 위원장(노동악법등이 철폐될 때까지 싸우겠다) 연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4년형을 살고 만기출소한 이철우씨와 변의숙, 함정희 어머니가 국가기밀 한정합헌 선고와 관련하여 사죄발표, 진관스님 편지낭독(김성만 씨 어머니), 꽃다지 노래공연이 이어지다.

- 대한 예수교장로교회 목회자, 신도 100여명 백주년 기념관에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 철폐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탑골공원에서 거리행진.

- 6월 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사무실 개관식.

- 4월 혁명 연구소, 낙성대 회의실에서 날치기 무효화 등 시국토론회.

- 8. 15 연세대에서 강제연행 성추행당한 여학생 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지법에 내다.

31 - 무연고 출소 선생님, 낙성대 만남의 집 등에 생활지원비 드림

- 미결, 5년 미만 기결 양심수들에게 영치금을 보낸다.

1. 12. 부산 민가협 회원이며 서울 민가협과 후원회에 큰 애정과 성원을 다하셨던 정정수님의 부군 박사조(64세)께서 오랜 투병 끝에 폐결핵으로 10일 운명, 12일 영결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민가협 회원들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14.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구금중인 이경섭씨의 어머니 고순금님께서 투병중인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과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1. 28.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을 지내고 남민전 사건과 범민련 사건으로 옥고를 겪은 김영옥 선생님 사모님이 당뇨, 신장염 등 질환으로 오랜 투병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30일, 서울대 병원에서 영결식을 갖고 용미리 서울시청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고인은 1931년 대구에서 출생 원산중학교를 졸업, 여수동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1950년 서울로 와 1964년 김영옥 선생님과 결혼, 1남 2녀를 두셨습니다. 1972년 7.4성명 뒤 이른바 '오작교'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다 당뇨, 신장 등 질환으로 혈관투석, 복막투석 등으로 투병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 1. 18. 음시룡감시룡이 새해 첫모임을 갖고 새 으뜸일꾼으로 신현부씨를 이병민, 오순균씨를 총무로 뽑았습니다. 새해계획으로 역사문화기행과 양심수 후원, 회원친목 등 뜻을 모았습니다. 발전을 빕니다.
- 여든여덟(한양대, 한양여전 탈패 88학번 모임) 회원들이 새해 새회장을 박철민 씨로, 총무로 김민성씨를 뽑았다고 합니다. 힘찬 활동 기대합니다.
- 1. 26. 소수영 운영위원 어머니 유금수님의 고회연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500여 축하 손님과 잔치를 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 고려대 '정치경제연구회' 81-85학번 동문일동이 양심수 후원을 위해 800,000원의 성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안동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지난 성탄절 새벽노래에서 모은 현금 300,000원을 양심수 후원을 위해 써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인문사회과학출판영업회(인사회) 모임에서 장기수들에게 보내달라며 좋은책 100여권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이은주(강남구 도곡2동) 임종수(강서구 등촌동) 정미명(종로구 숭인동) 이중기(은평구 용암4동) 윤현숙(동작구 사당5동) 강미숙(관악구 봉천6동) 이상운(한양대학교 탈패) 은주홍(중구 다동) 하지순(중랑구 면목동) 유성희(부평동 부개2동) 강혜영(부천시 원미구) 박미영(강북구 미아8동) 황현숙(강동구 명일동) 김종영(동대문구 이문2동) 송병희(관악구 신림2동)

이 겨울, 가슴 따뜻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1958년에 체포되어 40년동안 편지한장, 면회한번 없이
차디찬 독방에 외롭게 구금되어 있는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노인(69세).
그는 찬바람 불면 더 심해지는 얼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로
이제는 말 한마디도, 밥 한술 떠넣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에 살고있는 89세의 고봉희 어머니는
홀로 한결을 떼기도 어려운 늙은 몸을 이끌고
대전까지 아들(신인영, 31년제 구금중) 면회를 갑니다.
31년이 이르도록 끝이 안보이는 면회길.
그러나 작은 소원하나 안고 갑니다.
“내가 죽기전에 우리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줄 수 있을까.”

올해 다섯살난 명지의 엄마 차정원씨.
첫 아이를 낳은지 3일만에 감옥으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며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고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느닷없이 임용을 거부당해
생계도 막막해지고 오랜 꿈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이 어머니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딸이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양심수를 가두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족들의 그리움과 고통을,
양심수들의 간헐 꿈과 희망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겨울, 우리는 가슴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 ~ 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